

반환점 맞은 '2015 프로야구'

'흥미진진' 순위 싸움... '점입가경' 기록 경쟁



2010년 류현진 이후 평균자책점 1점대에 도전하는 KIA 양현중.

1위 삼성~4위 넥센 2게임차...5위~9위 4.5게임차 '박빙'
양현중 1점대 평균자책점 도전...피카로·유희관 다승 공동선두
강민호, 생애 첫 홈런왕 겨냥...KIA, 승률 5할·리그 공동 6위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29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삼성	42	30	0	0.583	1패
2 NC	41	30	1	0.577	2패
3 두산	40	30	0	0.571	1패
4 넥센	40	32	1	0.556	2승
5 한화	38	35	0	0.521	1승
6 SK	35	35	1	0.500	1패
6 KIA	35	35	0	0.500	1승
8 롯데	34	39	0	0.466	2패
9 LG	34	40	1	0.459	2승
10 kt	21	54	0	0.280	1승

2015 프로야구가 반환점을 돌았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막내구단 kt wiz의 참여로 역대 최다인 720경기의 대장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28일까지 362경기가 치러지면서 2015 프로야구는 전체 일정의 전반을 소화했다.

KIA는 전체 144경기 중 우천으로 취소된 10경기를 제외하고 70경기를 치렀다. 28일 스티븐슨의 8이닝 1실점 호투 속에 시즌 35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KIA는 35승 35패 공동 6위로 반환점을 지났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투수력 약화 우려의 목소리 속에 출발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타교투저 현상이 완화된 모습이다. 리그 평균자책점이 5.29에서 4.77로, 타율은 0.291에서 0.273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36명이나 됐던 규정타석 이상 3할 타자도 올해는 26명을 기록하면서 10명이 줄었다.

KIA는 4.50의 평균자책점으로 전체 4위의 기록을 냈지만 타율이 0.253으로 최하위를 보이면서 승률 5할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KIA에서 규정타석에 든 3할 타자는 필(0.313)이 유일하다.

또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은 11.4점에서 10.3점으로 떨어졌고, 볼넷은 7.7개에서 7.4개로 줄어든 반면 삼진은 경기당 12.6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투구 수도 312개에서 309.8개로 줄었다. 투타의 균형 속 스피드업 규정이 강화되면서 평균 경기 소요 시간은 지난해 3시간 26분에서 3시간 19분으로 7분가량 단축됐다.

10개 구단이 벌이는 순위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 시즌 삼성이 2위 넥센과 4게임차를 보였지만, 올 시즌에는 1위 삼성부터 4위 넥센까지 2경기 차에서 대결을 벌이는 등 혼전의 순위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중위권 싸움도 뜨겁다. 4위 롯데부터 8위 SK까지 8게임차로 벌어져 있던 지난해에 비해 현재 5위 한화는 4위 넥센을 2.5게임차로 쫓고 있다. 9위 LG와는 4.5게임차로 좁혀져 있다.

올 시즌 팀당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16경기가 늘어나면서 개인 기록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삼성 피카로와 두산 유희관이 전반기에만 11승을 거두며 20승 고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넥센 밴헤켄(20승)에 이어 2년 연속 20승 투수가 탄생하면 1989년과 1990년(해태 선동열 21승-22승)이후 25년 만이다.

KIA에서는 양현중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양현중은 1.63의 평균자책점으로 2010년 한화 유현진 이후 5년 만의 1점대 평균자책점에 도전한다.

24개의 홈런을 날리며 넥센 박병호와 공동 선두에 오른 롯데 강민호는 생애 첫 홈런왕을 겨냥한다. 2000년 박경완(당시 현대)이 세운 포수 한 시즌 최다 홈런(40홈런) 신기록도 기대된다.

한편 5할 승률로 후반기 일정에 나서게 된 KIA는 주중 한화와의 홈경기 이후 수월로 건너가 kt전 연습 잇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선택, 광주일고 에이스 김현준

직구·슬라이더·체인지업 구사능력 뛰어나...유창식 사촌동생

2016 신인 1차 지명

“실력으로 보여주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2016년 신인 1차 지명선수로 광주일고 에이스 김현준(18·우투우타)을 지명했다.

우완 정통파인 김현준은 182cm, 77kg의 체격을 갖췄으며 투구 밸런스가 좋고 다양한 구질을 구사한다. 최고 146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에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 등 각종 변화구 구사능력이 뛰어나다. 체중 증가와 함께 체계적 훈련이 더해진다면 빠른 기량 발전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중-광주일고 선배이기도 하다.

김현준은 1학년 때인 2013년 2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0.00, 2학년 때는 10경기에 나와 1승 평균자책점 4.32를 기록했다. 올해는 9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5.14를 마크하고 있다.

KIA 좌완 유창식의 사촌 동생으로 임기준·고영창에 이어 '사촌 야구인'이 됐다. 김현준은 “기분이 좋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명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걱정하지는 않는데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는 각오다”며 “구속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즌 초반 결과가 좋지 못했다. 힘 빼고 던지

려고 한다. 곧 대통령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좋은 모습 보이면서 꼭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야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는 사촌형 유창식이 있다. 야구부에서 뛰는 사촌형을 보고 자연스럽게 야구를 시작했고, 나란히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게 됐다. 유창식은 화정초-무등중-광주일고 선배이기도 하다.

김현준은 “형을 보고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같은 프로 선수가 된다. 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라운드에서는 경쟁자로 최선을 다해 야구를 하겠다. 또 인성을 갖춘 선수이자 포기하지 않는,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겠다. 타이밍 뺏는 체인지업을 잘 던져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상 있지만 고향에 금메달 선물할 것”

체조 양학선, 햄스트링 파열...U대회 한국 금 25개 목표 비상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금메달을 놓친 기계체조 양학선이 또 다시 같은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금메달 25개와 종합 3위를 노리는 한국 대표팀의 목표에 이상 전선이 생기게 됐다.

양학선은 29일 오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입촌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3주전 햄스트링이 파열돼 훈련을 못하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몸 상태가 아시안게임보다 좋지 않다”면서 “아시안게임 뒤 동계훈련을 마치고 지난 5월까지는 햄스트링 부상이 거의 완쾌됐는데, 3주전 다시 (햄스트링이) 파열돼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담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자신감을 잃으면 안되니까 자신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양1’, ‘양2’ 등의 기술에 대해서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 계획”이라며 “경기 당일 컨디션과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학선은 “제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이번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진정한 홈 경기”라며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수는 관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힘이 된다”



며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세계 야구 '프리미어 12' 사령탑에 김인식

2009년 WBC 이후 6년만...1차 엔트리 구성 착수

KBO 김인식 기술위원장 '2015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는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9일 “대회가 오는 11월 KBO리그가 종료되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체계적인 대표팀 구성과 준비를 위해 전임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 전년도 우승 또는 준우승을 한 현역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기로 되어 있지만 일정상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2015 프리미어 12'는 전임 감독 체제로 치러진다.

한화, 두산 감독 등을 지낸 김인식 기술위원장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6년 WBC 4강 진출, 2009년 WBC 준우승의 궤적을 이루는 등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지휘했다.

김인식 감독은 9월10일로 예정된 1차 엔트리(45



명) 마감일에 맞춰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WBSC(국제야구소프트볼연합회)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하는 '2015 프리미어 12'는 세계 랭킹 12개국이 참가하는 국가 대항전으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일본과 대만에서 분산 개최된다.

B조에 속한 한국은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미국 등과 예선 라운드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